



# 보도자료

담당자 조재린 부원장(3775-9004)

보도 2025. 1. 16(목) 15:00 부터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매수 총 4매

## 보험연구원 및 포항공과대학교,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 영향, 보험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발전 방안은?」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보험산업의 기후리스크 대응 방향은,

“1) 자연재해 평가모델 고도화와 2) 자본 건전성 모델 개발”의 투트랙으로 가야함

-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과 포항공과대학교(총장 김성근)는 1월 16일(목) 오전 10시 한경협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 영향, 보험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발전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음
  - 이번 세미나는 현실화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술적 관점에서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발전 방향 및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위기와 기회 요인을 논의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음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몇 년간 경험하고 있는 다수의 극한기상현상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 “불확실성을 높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여 보험산업의 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체계 발전방향 및 새로운 기회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며 기후리스크 관리에 관한 생산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본 행사를 기획한 포항공과대학교 정광민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국가와 지역에 관계없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거대 리스크” 라며 기후변화 리스크의 사회적 영향을 언급하였음
  - 이어서 “개인 및 사회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장의 가치를 제공하는 보험의 역할을 돌아보고, 국제적 차원에서 기후리스크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본 세미나의 의미가 크다” 며, “오늘 세미나가 제공한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는 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고 강조하였음
- 기조연설자로 나선 글로벌 보험산업 싱크탱크인 제네바 어소시에이션(The Geneva Association)의 Maryam Golnaraghi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실장은 제1주제 『에너지 전환과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기후테크 활용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시장 전반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의 부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기후테크 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기술력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코리안리재보험 백천우 박사는 제2주제 『손해보험산업의 기후리스크 영향과 대응현황: 물리적 리스크 중심』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평가 모델의 발전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제3주제 『폭염이 생명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폭염의 증가와 같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생명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개인적 요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금융감독원 황재학 박사는 제4주제 『기후리스크 감독 이슈』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금융 및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금융감독 방향성을 발표하였음
- 본 행사의 2부 세션인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먼저, 포항공과대학교 정광민 교수는 제1주제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개요』 발표를 통해 보험

회사가 △ 시장 공급 측면에서 보다 정확한 기후 리스크 평가 모델 개발과 △ 시장 안정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 또는 제고하기 위한 자본 평가 모델 개발의 두 가지 역량 확보에 힘써야 함을 주장하였음

- 이화여자대학교 최용상 교수는 제2주제 『기후리스크 모델의 현실』 발표에서 기후리스크 모델의 현실을 지적하며, 세밀한 데이터 집적 및 고도화된 인공지능 모델 활용 등 적극적 산학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체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음
- 고려대학교 정동휘 교수는 제3주제 『기후재난에 의한 피해 정량화: 사회기반시설, 데이터와 모델의 활용』 발표를 통해 고도화된 자연재해 리스크 평가모델의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피해를 정확히 추정할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독일 뒤스부르크 대학교 Ruediger Kiesel 교수는 제4주제 『유럽 보험시장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상품, 규제, 그리고 전문 역량』 발표를 통해 유럽 보험시장에서의 기후리스크 대응 현황을 설명하며 금융감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중국 칭화대학교 Runhuan Feng 교수는 제5주제 『자연재해 위험폴링 방법론』 발표를 통해 거대 리스크로서의 자연재해 리스크를 지역단위 위험 폴링 협력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론을 소개하였음
- 연세대학교 김준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2부 세션의 발표자들은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한 거대 피해를 통제하고, 사회 전반의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 발전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논의하였음

첨부: 프로그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http://www.kiri.or.kr>)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프로그램 -**

〈1부 : 기후리스크 대응 현황〉	
시간	내 용
10:00 ~ 10:05	(개 회 사)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10:05 ~ 10:10	(촉 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10:10 ~ 10:15	(환 영 사) 원종규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
10:15 ~ 10:20	단체사진 촬영(VIP 및 발표자)
10:20 ~ 10:50	(기조연설) 에너지 전환과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기후테크 활용 확대 방안 Dr. Maryam Golnaraghi (제네바 어소시에이션(The Geneva Association)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실장)
10:50 ~ 11:00	Break Time
11:00 ~ 11:20	(주제발표1) 손해보험산업의 기후리스크 영향과 대응현황 : 물리적 리스크 중심 백천우(코리안리재보험 박사)
11:20 ~ 11:40	(주제발표2) 폭염이 생명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경선(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1:40 ~ 12:00	(주제발표3) 기후리스크 감독 이슈 황재학(금융감독원 박사)
12:00 ~ 13:00	오 찬
〈2부 :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발전방향 고찰〉	
13:00 ~ 13:30	(주제발표1)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개요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교수)
13:30 ~ 14:00	(주제발표2) 기후리스크 모델의 현실 최용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4:00 ~ 14:30	(주제발표3) 기후재난에 의한 피해 정량화: 사회기반시설, 데이터와 모델의 활용 정동휘(고려대학교 교수)
14:30 ~ 14:50	Break Time
14:50 ~ 15:20	(주제발표4) 유럽 보험시장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상품, 규제, 그리고 전문 역량 Dr. Ruediger Kiesel(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교수)
15:20 ~ 15:50	(주제발표5) 자연재해 위험물링 방법론 Dr. Runhuan Feng(중국 칭화대학교 &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교수)
15:50 ~ 16:00	Break Time
16:00 ~ 16:50	(패널토론) 좌 장 : 김 준(연세대학교 교수) 토 론 : 2부 발제자 전원 자유토론
16:50 ~ 17:00	(맺 음 말) 송영흠(코리안리재보험 전무)